

# 東學의 外來 道·佛·儒 三教受容說 批判

## — 神仙道와 東學의 發生淵源 —

안 창 범

(사범대 국민윤리교육과)

### 차 례

1. 序 論
2. 神仙道の 概觀
  1. 神仙道の 由來
  2. 神仙道の 道·佛·儒 三教一體思想
  3. 問題點의 論議
3. 東學思想과 그 淵源
  1. 東學의 道·佛·儒 三教一體 思想
  2. 東學의 神仙道 傳承
4. 神仙道와 東學의 同一性
  1. 發生原理의 同一性
  2. 基本思想의 同一性
5. 結 論

## 1. 序 論

東學은 근세조선 말엽 水雲 崔濟愚 先生(서기 1824-1864년)에 의

해 설파되었다. 그때는 외래의 道·佛·儒가 우리나라에 전래되어 천수백년이 지난 이후이며, 기독교(가톨릭)가 전래되어 근 백년이 경과한 이후이다. 그리고 지금(서기 1995년 현재)으로부터 5892년전 桓雄天皇에 의해 설해진 道·佛·儒 三教一體의 神仙道가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사실을 일반 학계에서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한웅천황이라면 신화적인 존재로 인식한다.<sup>1)</sup> 그럼으로써 동학에 내포되고 있는 도·불·유 三教一體의 사상을 동양의 전통적 외래사상의 종합이니 재구성이니 수용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은가 하면,<sup>2)</sup> 기독교의 선진적 요소까지 수용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허다하다.<sup>3)</sup> 그것이 오늘날 사계 학자들의 일반적 견해이다.

그러나 동학발생의 시원을 찾아 올라가면 동학은 신화적 허구로 버림받고 있는 한웅천황에 의해 설파된 상고시대의 神仙道에 바탕을 두고, 新羅 말엽의 대문호 孤雲 崔致遠 선생을 거쳐 그 25世孫인<sup>4)</sup> 수운 최제우 선생에게 전수된다. 그래서 신선도와 동학은 다 같이 天一·地一·人一의 三神一體인 天道를 발생원리로 하고, 도·불·유 三教一體를 기본사상으로 하며, 그밖에도 至氣論·송배의 대상·순환론·생명평등사상 내지 만물일체사상·민주주의사상 등

1) 한인·한웅·한검이 지금까지 신화적 허구로 취급되어왔으나, 실은 신화적 존재가 아니라 신선도를 설한 상고시대의 위대한 聖人이다. 이에 대해서는 安禎範 著, 『民族思想의 源流』, (서울: 敎文社, 1992), pp.159-169의 “建國秘史의 神話說 批判”을 참고하기 바란다.

2) 申一澈, “崔水雲의 歷史意識”, 韓國思想研究會, 『韓國思想叢書』, IV, 崔水雲研究, (泰光文化社, 1980), p.21. 李炫熙, 『東學思想과 東學革命』, (청아출판사, 1984), p.16. 白世明, “韓國思想의 由來와 將來”, 韓國思想研究會, 『韓國思想叢書』, I, 古代人の 文化와 思想, (景仁文化社, 1973), p.51. 李乙浩 外, 『한思想和 民族宗教』, (一志社, 1990), p.100 등. 이상의 기록에서는 東學思想 또는 花郎道 자체가 外來의 道·佛·儒 三教思想을 수용한 것으로 기술되고 있다.

3) 申福龍, 『東學思想과 甲午農民革命』, (平民社, 1985), p.21, 239. 金庠基, 『東學과 東學亂』, (大成出版社, 1945), pp.22-23, 41-49. 이들 기록에서는 동학사상이 외래의 道·佛·儒 사상은 물론 기독교의 사상까지 혼합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4) 李敦化 編述, 『天道敎創建史』, 第一編, (景仁文化社, 1982), p.1에는 崔濟愚 선생이 崔致遠 선생으로부터 第28世孫으로 기록되고 있으나, 『慶州崔氏大同譜』, (慶州崔氏花樹會, 1969年 發行)에 의하면 第25世孫이다. 따라서 종전에 第28世로 잘못 발표된 것은 『慶州崔氏大同譜』에 따라 그것을 시정한다.

모든 사상이 동일하다. 따라서 동학의 도·불·유 三敎一體 사상은 동양의 전통적 외래사상을 수용한 것이 아니라 고유사상의 전승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새로이 밝혀 잃어버린 고유사상을 재발굴하고 재정립하는 데에 일조하고자 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다시 말하면 동학이 동양의 전통적 외래의 도·불·유 三敎思想을 수용하여 종합 내지 재구성했다는 일반적 견해에 대한 반론인 것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첫째, 신선도와 동학이 다 같이 도·불·유 三敎一體 사상임을 밝히고, 둘째, 동학이 신선도를 전승했다는 전거의 문제, 셋째, 신선도와 동학이 그 발생원리에 있어서 서로 동일하고, 기본 사상도 동일함을 밝힌다. 그밖의 문제는 논외로 한다.

그러나 본고의 내용은 새로운 시도로서 거기에 대한 자료도 희귀할 뿐만 아니라 보완해야 할 점이 많을 것으로 본다. 널리 이해하여 주기 바란다.

## 2. 神仙道の 概觀

본고에서의 주요 논제는 동학의 도·불·유 사상이 동양의 전통적 老·釋·孔의 道·佛·儒 사상을 수용한 외래사상이나, 아니면 상고시대부터 전승된 우리민족의 고유사상이나 하는 문제이다. 만약 동학의 도·불·유 사상이 외래사상을 수용한 것이 아니라 고유사상을 전승한 것이라면 이들 사상이 우리나라에 전래되기 전에, 원초적 道·佛·儒 사상이 상고시대부터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야 한다. 이제 동학의 母體인 神仙道の 由來와 그 사상이 도·불·유 三敎一體 思想임을 밝힌다.

### 1. 神仙道の 由來

지금까지 우리민족은 원시적 무속신앙과 외래의 도·불·유 외에 고유철학도 고유종교도 없는 미개민족같이 자학해 왔다. 그러나

『청학집』에 의하면 桓因(桓仁)은 東方仙派의 祖宗으로서 그 뜻을 그 아들 桓雄에게 전하니, 한웅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동방의 족속들을 교화했으며, 다시 한웅의 아들인 단군이 그業을 계승해서 나라를 다스리다가 阿斯達에 들어가 仙化했는데, 그뒤 그 道가 文朴氏에게 전승되고 문박씨는 단군의 道를 向彌山人 永郎에게 전수했다고 하였다.<sup>5)</sup> 또한 『조선도교사』에 의해도 우리 동방은 文朴氏가 桓因에 연원을 둔 清潔之學을 전하였다 하고, 桓因 眞인이 大王氏에게 始書를 짓게 하고, 終書 一卷을 自作했는데, 始書는 風雨·五穀·飲食·鍊養의 法度を 주재함에 있어 정성과 신의로서 다루지 아니하고 음난하지 아니하며, 인간을 위하여 잘 섬기라는 것이고, 終書는 日月·星辰·天地·山川의 理致 및 性命之源과 神道·妙德之訓을 쓴 것인데, 그 글이 文朴氏로부터 乙密·永郎·晏留·普德·聖女들에 전해졌다고 하였다.<sup>6)</sup> 즉 신선도가 한인에서 비롯하여 문박씨를 매개로 고구려·백제·신라의 신선들에게 전승됐다는 것이다. 또한 『桓檀古記』 三聖紀全 下篇을 보면 安巴堅 桓因이 “桓雄 天皇에게 天道를 大覺하여 종교를 세워 子孫萬代에 洪範이 되게 하라”는 교시가 있고,<sup>7)</sup> “한웅천황이 (天一·地一·人一의) 三神으로 종교를 창설하고 仙界의 戒律로써業을 삼아 무리를 모아 맹세하고 勸善懲惡하는 법을 세웠다”고 하였다.<sup>8)</sup> 『삼국유사』 고조선기에도

5) 趙汝籍, 『靑鶴集』, 『揆園史話·靑鶴集』, 影印本, (亞細亞文化社, 1976), pp.152-153. 『靑鶴集』에 의하면 桓因이 廣成子에게 受業한 것으로 기술되고 있으나, 葛洪이 지은 『抱朴子』에는 桓因보다 극히 후대의 인물인 黃帝가 廣成子에게 수업한 것으로 기술되고 있다. 따라서 桓因이 廣成子에게 수업했다는 것은 시대적으로 성립되지 아니한다. 이점에 유의하기 바란다.

6) 李能和, 『朝鮮道敎史』, 제2章 朝鮮檀君神話最近於道家說, (影印本, 中央大學校韓國學研究所, 1977), pp.13-14. 李鍾殷譯, 『朝鮮道敎史』, (普成文化社, 1983), p.32.

7) 金殷洙譯, 『桓檀古記』, 三聖紀全下篇, (가나出版社, 1985), p.361: 開天立敎 在 世理化爲萬世子孫之洪範也. 이때의 ‘開’는 “크게 깨닫다, 크게 통하다”의 뜻이며, ‘天’은 天理·天道의 뜻으로, 開天은 “天道를 크게 깨닫다”의 뜻이다.

8) 上揭書, 同面: 桓雄乃以三神設敎 以佺成爲業 而衆作誓 有勸善懲惡之法. 여기에서의 三神은 天一·地一·人一을 의미하며, 設은 “세우다, 설치하다, 은혜를 베푸다”의 뜻으로, 敎는 ‘종교’로 풀이하여 設敎는 “종교를 세우다, 종교를 창설하다”의 뜻이다. (張三植編, 『大漢韓辭典』, 進賢書館, 1979, 敎字 參照).

한웅천황이 太白山頂(白頭山 天池)의 神壇樹 밑에 내려와 神市를 세우고 在世理化 弘益人間하였다는 기록이 있다.<sup>9)</sup> 그때는 단기 앞 1565(개천 5892)년 10월 3일로서,<sup>10)</sup> 오늘날 10월 3일의 開天節行事는 한웅천황이 천도를 대각하고 종교를 세웠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神檀實記』 教化源流篇에는 단군왕검도 神人으로서 風伯·雨師·雲師 등 神官을 거느리고 종교를 세워 主穀·主命·主病·主刑·主善惡 및 衣服·飲食·宮室·編髮 등 인간의 三百六十六事로서 黑水에서 漢南에 이르는 九族을 다스렸다는 기록이 있다.<sup>11)</sup>

이상은 신화적 존재인 한인·한웅·한검(단군왕검)이 天一·地一·人一의 天道에 바탕을 두고 종교를 설교했다는 기록들이다. 그러나 이를 누가 믿겠는가 의 문제이다. 그래도 『周易』이라면 동양의 최대 고전이며 『東文選』이라면 누구나 믿는 최근세의 著作으로 그 기록을 함부로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周易』 風地觀에 이르기를 “하늘의 신비한 법도를 보니 四時의 운행이 어김없는지라, 이에 聖人이 신비한 법도로서 종교를 창설하니 천하가 복종하더라”하였는 가 하면<sup>12)</sup>, 『동문선』에도 “신비한 법도로서 종교를 창설하니 태평

9) 『三國遺事』, 紀異 第一, 古朝鮮 篇 參照. 여기에서 말하는 太白山을 中國의 甘肅省 敦煌縣 남쪽에 있는 三危山이라 주장하는 학자가 있는가하면, 中國의 山東省 泰安의 북쪽 五嶽 중의 東嶽인 泰山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 그러면서도 거기에 대한 근거는 모호하다. 그런데 우리나라 함경남북도와 만주의 연변에 걸쳐있는 백두산은 거기에서 신선도가 베풀어졌고, 봉래·방장·영주의 삼신산이 있어 백두산을 일명 三神山 또는 太白山이라 한다.(金殷洙 譯, 『檀檀古記』, 太白逸史 神市本紀, 가나出版社, 1985, p.155. 金得悅, 『白頭山과 北方疆界』, 思社研, 1987, p.15 : 안호상, 『단군과 화랑의 역사와 철학』, 사림원, 1979, pp.129-131).

10) 10월 3일은 開天節이다. 그런데 金殷洙 譯, 前掲書, p.52에 의하면 開天 1565년 10월 3일에 이르러 단군왕검이(백두산 천지) 檀木의 터에 와서 三神에게 제사를 올리고, 九桓의 추대를 받아 왕이 되고 朝鮮國을 세웠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桓雄天皇이 開天設教한 것은 단기 앞 1565년 10월 3일이며, 개천은 4328+1565-1=5892년으로서, 오늘날 10월 3일의 開天節行事는 단군왕검이 朝鮮國을 건국한 紀念行事이기도 하지만 원래 桓雄天皇이 開天設教한 紀念行事인 것이다. 이는 오늘날 8월 15일이 光復紀念日임과 동시에 大韓民國 建國紀念日인 것과 같은 격이다.

11) 金教獻, 『神檀實記』, 教化源流, (한뿌리, 1987), pp.46-47.

12) 『周易』 風地觀에 “觀天之神道 而四時不忒 聖人以神道設教 而天下服矣”라 하였다. 여기에서 設教은 “종교를 세우다. 종교를 창설하다”는 뜻이다.

이 가득하다”고 하여<sup>13)</sup> 『주역』과 『동문선』이 한인·한용·한검에 의한 종교창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일반 史書에도 神道·神教·神仙道·神仙教 등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sup>14)</sup> 『神檀實記』와 『檀君教復興經略』을 보면 檀君神教가 전승되면서 三韓(古朝鮮)에서는 天神教, 부여에서는 代天教, 고구려에서는 敬天教, 신라에서는 崇天教, 발해에서는 眞宗教, 遼와 金에서는 拜天教, 만주에서는 主神教 등으로 불리우는 종교가 있었다고 하였다.<sup>15)</sup> 고려 때에도 王儉教나 在家僧이니 하여 그 명맥이 유지되다가 元나라 몽고군이 근 백년에 걸쳐 고려를 지배할 때, 그 탄압에 못이겨 불교 속으로 은익하게 되었다.<sup>16)</sup> 이때부터 신선도는 우리민족의 기억에서 사라지기 시작하여 겨우 그 뿌리만이<sup>17)</sup> 민속에 남아있을 정도이고, 그 사상이나 계율이 무엇인지 오리무중이다. 따라서 신선도의 발생원리 내지 발생학적 배경이 天道라 하나, 원시시대에 天道란 있을 수 있느냐 하고 무시하게 되며, 그 사상이나 계율의 존재도 부정하게 된다. 그래서 신선도의 모든 것을 외래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고 왜곡하게 된다.

여기에서 합리적 成立宗教인 神仙道는 원시적인 巫教로<sup>18)</sup> 신선도를 설한 桓因·桓雄·桓儉의 三聖은 신화적인 존재로, 아시아의 황금시대에 찬란했던 민족문화는 근거없는 것으로, 東方禮儀之國이니 君子之國이니 함도 국수주의자들의 과장된 표현으로 보게 되고, 민족문화의 원류는 중국이나 印度 아니면 시베리아나 西歐로 보게

13) 『東文選』 第三十一卷, 教坊貫入關表에 “神道設教 大平持盈”이라 하였다.

14) 金得樸, 『韓國宗教史』, (白岩社, 1978), p.40. 이외에도 李能和의 『朝鮮道敎史』와 『朝鮮巫俗考』 등 여러 책에 神道·神教·神仙道·神仙教니 하는 말이 자주 보인다.

15) 金敎獻(李民樹 譯), 『神檀實記』, (한뿌리, 1987), p.51. 大宗教總本司, 『檀君敎復興經略』, pp.4-5; 金得樸 『韓國古代道德의 研究』, (백암사, 1978), pp.168-169의 본문 및 註에서 재인용.

16) 안호상, 『단군과 화랑의 역사와 철학』, (사림원, 4312:1978), p.108.

17) 여기에서의 뿌리는 우리의 민속에 남아 있는 하나님 사상을 의미한다. 뒤에 상술된다.

18) 巫敎 역시 그 시원을 찾아 올라가면 神仙道의 遺風·遺俗이다(安範範, 『한민족의 신선도와 불교』, (국학자료원, 1,993), pp.188-192참조).

된다. 그래서 우리민족은 세계사의 무대에서 하잘것 없고, 외래문화만을 받아들인 미개민족으로 자학하게 되는가 하면, 신선도를 부활시키고 이를 계승한 대종교·단군교·천도교·수운교·증산도·대순진리회 등 자생적 민족종교의 전통적 고유사상도 이를 부정하여 모두 외래사상을 흡수 종합한 짬뽕종교(syncretism)라고 매도하게 된다<sup>19)</sup>.

## 2. 神仙道の 道·佛·儒 三教一體思想

한인·한용·한검이 신화적 존재가 아니라 그들에 의하여 신선도가 배풀어졌다면 그 기본사상이 무엇이나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가 왜곡되어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음으로써 합리적 성립종교인 신선도가 원시적 巫敎로 추락되고 있는 것이다.

“崔致遠鸞郎碑序”에 의하면 신선도는 천부적으로 도·불·유 三教一體 사상을 이미 자체 내에 지닌 합리적 성립종교였다.<sup>20)</sup> 다시 말하면 신선도는 외래의 도·불·유 사상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들 三大宗敎 사상의 묘합과 같은 사상을 지니고 있었다. 그 원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崔致遠鸞郎碑序 曰 國有玄妙之道 曰 風流 設敎之源 備  
詳仙史 實乃包含三敎 接化群生 且如 入則孝於家 出則忠  
於國 魯司寇之旨也 處無爲之事 行不言之敎 周柱史之宗  
也 諸惡莫作 諸善奉行 竺乾太子之化也.<sup>21)</sup>

19) 황준연, 『한국사상의 이해』, (박영사, 1992), p.171 및 181.

20) 成立宗敎란 自然宗敎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써 체계적인 사상과 계율과 의식과 이상향(내세관) 그리고 이를 수록한 경전을 갖춘 종교를 의미하고, 본고에서 말하는 종교는 死後의 영혼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서구적 의미의 종교 religion뿐만이 아니라, 인격완성을 통해 개인적으로는 聖人君子가 되고 사회적으로는 地上仙境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의 기본틀 즉 교육의 기본방침을 의미한다. 서구적 의미의 종교인 religion이 내세의 안락만을 추구하는 사상체계라면, 본고에서 말하는 종교는 과거·현재·미래를 통해 인격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상체계이다. 이와 같이 동서양의 종교관이 다름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위의 원문에 대한 국역은 다음과 같다.

최치원 난랑비서에 이르기를 나라에 현묘한 법도가 있으니 풍류라 한다. 이는 종교설립의 근원으로서 신선도의 史書에 상세히 실려 있거니와 근본적으로 (도·불·유)三敎의 思想을 이미 자체 내에 지니어 모든 생명을 가까이 하면 저절로 감화한다. 이를테면 집에 들어온 즉 효도하고, 나아간 즉 나라에 충성함은 魯나라 司寇(공자의 벼슬)의 敎旨와 같고, 하염없는 일에 머무르고 말없이 가르침을 실행함은 周나라 柱史(노자의 벼슬)의 宗旨와 같으며, 모든 악한 일을 짓지 않고 모든 착한 일을 받들어 실행함은 竺乾太子(가비라성의 석가)의 敎化와 같다.

위의 원문에 표현된 개념들 사이의 상호관계를 밝히면 그것은 鸞郎 즉 花郎=玄妙之道=風流=設敎之源의 敎 즉 宗教=仙史의 仙 즉 神仙道=實乃包含三敎이다. 다기 말하면 화랑도·현묘지도·풍류도·종교·신선도·實乃包含三敎가 상호 등식관계로서 동계사상이다. 이를 보면 신선도는 玄妙之道로서 풍류도 및 화랑도와 동계사상이며 實乃包含三敎한 三敎一體思想이다.

實乃包含三敎란 근본적으로 도·불·유 三敎의 思想을 이미 자체 내에 지니고 있다는 뜻이다.<sup>22)</sup> 즉 玄妙之道인 신선도는 도·불·유 三敎의 根源으로서 三敎一體 사상이며, 그 사상은 후천적 외래사상이 아니라 선천적 고유사상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까지 미궁에 빠졌던 우리민족의 고유사상이며 신선도의 사상인 것이다. 여기에서 신선도는 하나의 뚜렷한 합리적 성립종교라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할 수 있고, 우리민족은 세계의 어느 민족보다도 가장 먼저 합리적인 성립종교와 사상을 지닌 민족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21) 『三國史記』, 新羅本紀 第四, 24, 眞興王 37年條.

22) 實乃包含三敎의 '實'은 씨앗 곧 근본이라는 뜻이며, 包含은 원래부터 지니고 있다는 뜻이다.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三教一體의 思想을 부연 해설하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도·불·유 三教思想을 합일한 一物三面的인 體一用三·執一含三·會三歸一 思想이란 뜻으로 신선도는 다른 어느 종교보다도 더욱 심오하고 포괄적인 종교라 할 수 있으니, 신선도를 나누면 도·불·유가 되고, 도·불·유를 歸一하면 신선도가 되어 신선도는 도·불·유의 본체가 되고, 도·불·유는 신선도의 변용인 쓰임이 된다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그 사상을 비교해 보면 신선도는 노자의 도교나 석가의 불교 및 공자의 유교 등 그 본체가 되고, 이들 종교는 신선도의 변용인 쓰임이 된다.<sup>23)</sup> 그래서 신선도는 이들 종교의 개별적인 측면에서 보면 古道教·古佛敎·古儒敎가 되며, 신선도를 설한 한인·한웅·한검은 古佛·古聖이 되고, 三佛·三聖이 된다. 여기에서 한인·한웅·한검은 三聖 또는 三佛으로서 신화적 존재가 아니라 역사적 실재 인물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 3. 問題點의 論議

신선도와 화랑도가 도·불·유 三教思想을 근본적으로 이미 자체 내에 지닌 하나의 합리적 성립종교이며, 상고시대부터 있었다고 할 경우,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논의이다.

첫째, 『삼국사기』 신라본기 진흥왕 37년에 화랑을 처음으로 만들었다는<sup>24)</sup> 기록을 어떻게 해명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만약 이 기록을 그대로 믿는다면, 그 보다 14년 전 진흥왕 23년 9월에 加耶가 배반할 때, 異斯夫와 함께 출정했던 斯多含을 화랑이라 하였으니,<sup>25)</sup> 그 이유를 해명할 수 없다. 따라서 진흥왕 37년이라

23) 老·釋·孔의 道·佛·儒가 신선도의 지류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拙著 『民族思想의 源流』, (敎文社, 1990), IX, “老·釋·孔의 道·佛·儒의 起源과 神仙道와의 關係” 및 『한민족의 신선도와 불교』, (국학자료원, 1993), 제2편 “불교의 기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

24) 『三國史記』, 新羅本紀 第四, 二十四 眞興王 37年 條.

25) 上揭書, 卷 第四十四, 列傳 第四, 十 斯多含傳.

는 연도문제는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삼국유사』에는 진흥왕이 즉위하자 民家の 良子 가운데 아름다운 자를 뽑아서 原花(女花郎)를 만들었다 하였고,<sup>26)</sup> 『태백일사』를 보면 三韓 古俗에 蘇塗祭天儀式이 있었고, 그 소도가 있는 곳에 경당이 있어 未婚子弟에게 忠·孝·信·勇·仁의 五常과 讀書·習射·馳馬·禮節·歌樂·拳搏 兼 劍術 등의 六藝를 가르쳤으며, 女郎을 源花, 男郎을 花郎 또는 天王郎이라 칭하였다는 기록이 있다.<sup>27)</sup> 따라서 『삼국사기』 신라본기 진흥왕 37년에 처음으로 화랑을 만들었다는 年度는 모순임을 알 수 있다. 이래서 『삼국사기』의 기록을 어느 면에서 불신하게 된다.

둘째, 최치원 선생이 史學에 대해서 博學한지 의문이고, 後代인이 기록한 先代의 史實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하는 반론이다. 최치원 선생보다 더 박학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신라가 낳은 유일한 대문호이며 대사상가이고 道人이다. 이러한 사람의 기록을 믿을 수 없다면, 어느 누구의 기록도 믿을 수 없다. 그리고 난랑비서가 후대인의 기록이라 하더라도 “風流設教之源 備詳仙史”라 하여 『仙史』라는 古書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오늘날 史家들의 史書가 모두 편자보다 先代에 관한 기록들이지만 거기에 전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격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史家들의 史書를 믿어야 한다면 당연히 난랑비서의 기록도 믿어야 하고, 더욱이 한국사상을 말하는 사람치고, 최치원 난랑비서를 언급하지 않는 사람이 없음을 볼 때, 난랑비서의 기록을 믿지 않을 수 없다.

셋째, 도·불·유는 老·釋·孔에 의해서 集大成되었고 창설된 종교인데, 이들 종교보다 신선도나 화랑도가 先代宗教라면, 어떻게 선대의 사상이 후대의 사상을 지닐 수 있느냐 하는 반론이다.

이 문제가 지금까지 규명되지 않음으로써 우리민족은 고유철학도 고유종교도 없는 미개민족 같이 자학해 왔고, 金石之文인 “崔致遠

26) 『三國遺事』 塔像 第四, 彌勒仙花·未尸郎·眞茲師.

27) 金殷洙譯, 前掲書, pp.129-30.

鸞郎碑序”가 고의적으로 오역되고 있는가 하면,<sup>28)</sup> 선대의 역사와 고도한 문화사상도 부정하게 되고, 그에 대한 기록도 僞書로 물리게 되었다고 본다.<sup>29)</sup>

도·불·유 사상은 대자연의 운행원리인 天道에 바탕을 두고 설해진 사상이다. 어느 누구에 의해 조작되거나 창설될 수 있는 사상도 아니며, 중국이나 인도에만 국한해서 존재할 수 있는 사상도 아니다. 그러므로 본 문제는 도·불·유 사상이 대자연의 운행원리인 천도에 의해 설해졌고, 신선도의 지류로서 역수입됐음을 밝히면 풀리게 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의 항목 즉 “神仙道와 東學의 發生原理의 同一性”에서 밝힌다. 그러나 지면관계로 도·불·유 사상이 역수입되었다는 문제는 拙著 『民族思想의 源流』, (서울; 敎文社, 1989)와 『韓民族의 神仙道와 佛敎』, (서울; 國學資料院, 1993)를 참고해 주기 바란다.

### 3. 東學思想과 그 淵源

#### 1. 東學의 道·佛·儒 三教一體思想

본고에서 문제삼고 있는 동학사상이다. 동학사상은 수운 최제우 선생이 서기 1860년(단기 4193) 경신 4월 5일 得道함에서 드러난다. 30) 그 사상은 道·佛·儒 合一의 三教一體 사상이다. 松月堂이라는 老僧과의 문답내용을 보면 최제우 선생은 도·불·유를 하지는 않지만 좋아한다 하고, 비유하면 두 팔 가운데 어느 팔을 좋아하고 어느 팔을 싫어할 수 없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天道는

28) 崔致遠鸞郎碑序의 일반적인 국역을 보면, 設敎(종교를 세우다)를 “가르침을 설치하다”로, 包畵(원래부터 지니고 있다)을 包涵과 혼동하여 외부에서 받아들인 것처럼 ‘포함’으로, 且如(이것은...과 같다)를 ‘또는’으로 오역하고 있다.

29) 예컨대, 『桓檀古記』·『檀奇古史』·『揆園史話』에 상대 우리민족의 고도한 문화와 사상이 기록되고 있으므로 이들 책자를 僞書로 취급하는 학자들이 있다.

30) 『용담유사』, 용담가 및 『東經大全』 論學文.

없는 곳이 없고, 없는 곳이 없으므로 전체를 사랑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sup>31)</sup> 즉 동학사상은 도·불·유 합일의 전체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최계우 선생께서 그 제자 海月 崔時亨(초명은 崔慶翔)을 향하여 말하되 “吾道는 원래 儒도 아니고 佛도 아니며 仙(道敎의 고전적 표현)도 아니니라. 그러나 吾道는 유·불·선 합일이니라. 天道는 유·불·선이 아니로되, 유·불·선은 天道의 一部分이니라. 儒의 倫理와 佛의 覺性과 仙의 養氣는 人性的의 자연한 稟賦이며 천도의 고유한 부분이니, 吾道는 그 無極大源을 잡은 자니라. 후에 道를 쓰는 자는 이를 오해하지 말도록 지도하라” 하시었다.<sup>32)</sup>

이를 음미해 보면, 道의 養氣는 원기를 길러 불로장수(長命)를 추구하는 것이며, 佛의 覺性은 마음을 맑게 함(明心)으로써 성취될 수 있고, 儒의 倫理는 몸을 닦아(修身) 정기(精)를 성실하게 하자는 데에 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氣·心·身과 命·性·精을 닦고 기르는 것이 道·佛·儒라는 것이다.<sup>33)</sup> 氣·心·身과 命·性·精은 인성의 자연한 품부이며 서로 불가분적 일체관계이다. 그러므로 거기에서 발원한 도·불·유 사상 역시 불가분적 三敎一體 관계를 이룰 수 밖에 없고, 따로 따로 전래되어 종합되거나 재구성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동학경전에 天靈·天主·하늘님(동경대전 원본)·하늘님(수운교 경전)·한울님(동경대전 근세판)·天命·天理·天道·天德·天性·天地人三才·陰陽五行이라는 천도에 관한 용어와 사상이 나오고, 神仙·仙風道骨·仙藥·不死藥·不老不死·無爲而化·地上仙境이니 하는 도교적인 용어와 사상, 부처·八道佛前·山神佛供·輪廻·蓮花·三十三天·兜率天이니 하는 불교적인 용어와 사상, 그리고 上帝·道成德立·三綱五倫·聖人君子·忠孝烈士·孝子孝婦하는 유교적인 용어와 사상이 나온다. 그밖에도 중국의 三皇五帝·堯

31) 李敦化 編述, 『天道敎創建史』, 第一編(景仁文化社, 1982), p.33.

32) 上揭書, (第一編, 第九章, 道統傳授), p.47.

33) 이 문제에 대해서는 뒤에 상술된다.

임금과 舜임금·孔子와 孟子·諸葛亮·周濂溪 그리고 周易·大學·中庸 등이 거론된다. 그것은 학자들이 하나의 연구물을 발표할 때 기성의 연구물을 인용하는 것과 같은 격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동학경전을 보면 거기에 최제우 선생이 도·불·유 三教一體의 사상을 창설했다는 기록도 없고, 동양의 전통적 도·불·유 사상을 수용했다는 말도 없다. 오히려 “유교는 名節에 구애되어 아직 玄妙의 域에 이르지 못하였고, 불교는 寂滅로 들어가 倫常을 絶하였으며, 선교(도교)는 자연에만 悠適하여 治平의 術을 缺하였다” 하고,<sup>34)</sup> 이 세상은 堯舜의 政治로도足히 건지지 못할 것이요, 孔·孟의 道德으로도 또한 다스리지 못하리라 하는가 하면, 儒道·佛道 累千年에 運이 또한 다하였도다<sup>35)</sup> 하여 동양의 전통적 도·불·유 사상을 혹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계의 일부 학자들은 동학의 도·불·유 사상을 동양의 전통적 도·불·유 사상을 수용했다느니 종합했다느니 재구성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동학의 도·불·유 사상은 동양의 전통적 외래사상인가? 아니면 우리민족의 고유사상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 2. 東學의 神仙道 傳承

### 1) 白頭山 頂上의 龍王潭과 東學의 淵源

『東經大全』 絶句와 『天道教創建史』를 보면, 최제우 선생이 그 제자 최시형에게 道統를 傳授하는 말 가운데 “龍潭에서 물이 흐르니 四海의 根源이 되었다”고 하였다.<sup>36)</sup> 이는 용담에서 사방으로 江河가 흐르는 것을 의미하고, 이를 동학의 연원에 비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최시형 선생께서도 제자들에게 도통을 전수할 때 “山上에

34) 國民倫理學會編, 『韓國의 傳統思想』, (螢雪出版社, 1983), p.193에서 재인용.

35) 李敦化, 前掲書, (第一編), p.3.

36) 『東經大全』 絶句, : 龍潭流水四海源 龜岳春同一世花.

李敦化, 前掲書, 第一編, p.46 : 龍潭流水四海源 鈞括人在一片心.

서 물이 흐르니 吾敎의 道統淵源이라. 이 현묘한 기틀과 참다운 이치를 깨달은 연후에야 開關의 運과 無極의 道를 알게 되리라. 오호라! 뿌리없는 나무가 없고 근원없는 물이 없으니 만사가 오직 그와 같으니라”하여<sup>37)</sup> 동학의 연원이 최제우 선생의 창작도 아니고 외래 사상의 수용도 재구성도 종합도 아니라, 山上의 龍潭임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백두산 정상의 天池를 龍潭 또는 龍王潭이라<sup>38)</sup> 하고, 거기에서 압록·송화·소화·두만의 四大江河가 사방으로 흐르며, 한웅천황에 의해 도·불·유 三敎一體의 神仙道가 설파되었다. 따라서 최제우 선생이 말한 용담과 최시형 선생이 말한 山上의 물은 백두산 정상의 龍潭(天池)이라 할 수 있고, 그곳이 동학의 발원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흔히 최제우 선생의 고향인 경주의 稼亭里(근세판에는 柯亭里)에 용담이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東經大全』 修德文에 의하면 “난간이 못가에 다다르니 周濂溪의 뜻과 다름이 없고, 亭子의 이름을 龍潭이라 하였으니 諸葛亮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겠는가”하여<sup>39)</sup>, 용담이 정자의 이름임을 말하고 있는데, 『용담유사』 용담가에도 “龜尾山下 一亭閣을 龍潭이라 이름하고”하여<sup>40)</sup>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용담은 물이 아니라 정자의 이름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곳이 산의 정상도 아니고 거기에서 四方으로 물이 흐르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동학 발원지로서의 용담은 경주 가정리의 용담(정)이 아니라 백두산 정상의 용담이며, 그 곳이 동학의 발원지로서 동학의 도·불·유 三敎一體 사상은 동양의 전통적 老·釋·孔의 外來思想을 수용하여 종합하거나 재구성한 것이 아니라 상고시대부터 전승

37) 上揭書, p.73 ; 山上有水 吾敎道統之淵源也, 知此玄機眞理然後, 有以知開關之運無極之道矣, 嗟乎! 樹無無根之樹 水無無源之水 物猶如是.

38) 學園出版公社事典編纂局, 『學園世界大百科事典』, (學園出版公社, 1994), 天池 또는 龍王潭. 金得祝, 『白頭山과 北方疆界』, (思社研, 1987), p.23 參照.

39) 天道敎中央總部, 『天道敎經典』, (天道敎中央總本部 出版部, 布德, 125), p.206.

40) 『용담유사』 용담가.

된 신선도의 도·불·유 三教一體 사상을 전승했다는 증거가 제1차로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 2) 桓雄天皇과 崔孤雲과 東學의 神仙道 傳承

또한 『동경대전』을 보면 “山河大運이 모두 이 道에 돌아오니 그 근원이 극히 깊고 그 이치가 심히 멀도다” 하여<sup>41)</sup> 동학의 근원이 극히 심오함을 말하고 있는데, 『천도교창건사』를 보면 최시형 선생이 말씀하시기를 “吾道의 大運은 天皇氏의 根本原理를 回復한 無極之運이며, 天皇氏는 先天開關의 始祖를 의미한다”고 하였다.<sup>42)</sup> 義菴 孫秉熙 선생도 “우리 대선생(최제우 선생)께서 비로소 無極大道와 大德의 根本原理와 接靈降話의 理致를 밝혔다고 하나, 開關初의 天皇氏로부터 처음 비롯된 運이라 하니 의심하지 말라”하였다.<sup>43)</sup> 선천개벽 또는 개벽초라 함은 우리나라 開國初의 開關을 의미하니, 天皇氏는 우리나라 개국초에 도·불·유 三教一體의 神仙道를 베푼 桓雄天皇이라 할 수 밖에 없다. 한웅천황 외에 신선도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베푼 천황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동학의 도·불·유 三教一體 사상은 동양의 전통적 老·釋·孔의 外來思想을 수용하여 종합하거나 재구성한 것이 아니라, 상고시대에 桓雄天皇에 의해 설해진 신선도의 도·불·유 三教一體 사상을 전승했다는 증거가 제2차로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전술한 바, 최제우 선생의 第25世 始祖이신 고운 최치원 선생의 난랑비서에 “우리나라에 玄妙之道로서 도·불·유 三教一體 사상을 근본적으로 자체 내에 지닌 신선도(화랑도)가 있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동경대전』 논학문을 보면 최제우 선생께서 “내 또한 東에서 나서 東에서 받았다”하고,<sup>44)</sup> 絶句를 보면 “平生에 받은 天命

41) 『東經大全』 歎道儒心急；山河大運이 盡歸此道하니 其源이 極深하고 其理가 甚遠하다.

42) 李敦化, 前掲書, 第二編, p.27.

43) 上掲書, 第三編, p.20.

44) 『東經大全』, 論學文.

은 千年運數요, 聖德은 우리 집에 내려오는 百世의 業이라”하였다. 45) 즉 동학사상은 崔氏 집안에서 千年 동안이나 전승된 家業이었다는 것이다. 최치원 선생의 號를 孤雲 또는 海雲이라 하고, 최제우 선생의 號를 水雲, 최시형 선생의 號를 海月이라 하여 祖孫 사이에 그 號가 일맥상통하는 것을 보아도 동학사상이 崔氏 집안에서 대대로 전승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다시 동학의 도·불·유 三教一體 사상은 동양의 전통적 老·釋·孔의 外來思想을 수용하여 종합하거나 재구성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상고시대에 한웅천황에 의해 설해진 신선도의 도·불·유 三教一體 사상을 전승했다는 증거가 제3차로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 4. 神仙道와 東學의 同一性

지금까지 동학의 도·불·유 사상이 동양의 전통적 老·釋·孔의 思想을 수용한 것이 아니라 신선도의 사상을 전승한 것임을 밝혔다. 이는 곧 신선도와 동학이 근본적으로 동일함을 뜻한다. 그렇다면 신선도와 동학은 다 같이 그 발생원리와 신앙의 대상 등 그밖의 모든 사상이 동일해야 한다. 사람에 비유하면 이는 마치 祖孫關係나 父子關係에 있어서 그 유전인자와 혈액형이 서로 같거나 불가분적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과 같은 격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문제를 본항에서 규명해 나가기로 한다.

##### 1. 發生原理의 同一性

###### 1) 天一·地一·人一 三神一體의 原義

우리의 민속을 보면, 三神上帝·三神帝王·三神帝釋·三神할머니 하는 三神信仰이 있고<sup>46)</sup> 전술한 바, 한웅천황이 천도를 대각하여

45) 『東經大全』, 雜句：平生受命千年運 聖德家承百世業.



三神으로 종교를 세웠다고 하였다. 그러면 첫째, 三神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司馬遷의 『史記』封禪書에 의하면 三神이란 天一·地一·太一(人一의 강조)이라 하였고,<sup>47)</sup> 『檀檀古記』는 '高麗八觀記'의 三神說을 인용하여 좀더 자세히 밝혀주고 있는데, 요약하면 三神이란 天一·地一·太一이라 하고, 天一은 造化의 作用을, 地一은 敎化의 作用을, 太一은 治化의 作用을 주관한다 했으며, 三神을 쓰임(用), 그 본체(體)를 一上帝라 하였다.<sup>48)</sup> 이를 보면 三神은 인간을 비롯하여 만유를 낳고 양육하며 교육시키고 가꾸며 다스리고 벌을 주기도 하는 天一의 造化, 地一의 敎化, 人(太一)의 治化作用으로서 三神一體는 天一·地一·人一의 一體를 의미하고, 一體를 一上帝 즉 하나님<sup>49)</sup>이라 하고 있다. 그러므로 三神하나님 즉 三神上帝·三神帝王·三神帝釋·三神할머니는 三神一體에 대한 종교적 경칭이라 할 수 있고, 三神一體는 天道인 것이다.<sup>50)</sup>

둘째, 三神할 때, 神의 의미는 무엇인가? 『太白逸史』蘇塗經典本訓에 의하면 “神은 즉 氣이다. 氣는 즉 虛이다. 虛는 즉 一이다”라고 하였다.<sup>51)</sup> 이를 보면 天一·地一·人一의 ‘一’과 三神할 때의 ‘神’은 서로 같은 의미로서 氣를 의미한다. 氣는 이를 강조하여 一氣 또는 至氣로 표현되기도 한다. “至氣는 天地의 뿌리이며 만물의 어머니이고 생명이니 만물이 그리로 나고 그리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천도교에서는 가르친다.<sup>52)</sup> 즉 至氣는 一氣인데 우주운행의 원인

46) 우리말 사전 관련항목 참조.

47) 司馬遷(李成奎 編譯), 『史記』,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7), p.516.

48) 金殷洙譯, 前掲書, pp.124-25.

49) 기독교측이 포교전략상 우리민족의 신앙대상인 하나님을 기독교의 신앙대상인 여호와에 부합시켜 참칭함으로써 하나님을 원래부터 기독교의 신앙대상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있으나, 서구의 언어에는 하나님에 해당하는 용어가 없으며, 순수한 우리 말로서 상고시대부터 전승된 우리민족의 신앙대상을 알아야 할 것이다.

50) 桓因·桓雄·桓儉을 三神이라 지칭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의 桓因은 하늘님(天一)을, 桓雄은 한울님(地一)을, 桓儉은 한얼님(人一)을 의미하는 경우가 있고, 역사적 실재 인물로서의 桓因·桓雄·桓儉의 三聖을 神敎적으로 표현하여 三神이라 하는 경우가 있음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안창범, 『한민족의 신선도와 불교』, (국학자료원, 1.993), pp.123-125 참조.

51) 金殷洙譯, 前掲書, p.206.

내지 원리로서 無所不在하고 無所不容하며 無所不能한 존재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至氣를 종교화한 표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至氣 즉 一氣가 天一·地一·人一의 三極으로 나뉘어져서 세 가지 作用(三神) 즉 造化·教化·治化의 作用을 한다는 것이다.<sup>52)</sup> 그것이 三神이다.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하나(一)라는 뜻을 생각해 보아도 그것은 氣를 의미한다. 약설하면 하나님은 “하날님”의 연성음이며, 하날님의 원어는 “한알님”이다. 한알은 ‘한’과 ‘알’의 합성어이다. ‘한’은 한늘(하늘)·한울·한얼 할 때의 ‘한’으로서 우주를 의미하고, ‘알’은 원초적 기초단위의 생명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하나’는 한알을 의미하니 우주의 생명 에너지이며 靈氣이고 至氣이며 一氣이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一氣 곧 至氣의 作用에 대한 종교적 표현이며 경칭임을 알 수 있고, 天一·地一·人一의 三神一體는 하나님의 理法을 표현한 것임을 알게 된다.

셋째, 그러면 구체적으로 天·地·人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 字典을 종합해 보면, 天은 天界·天國·上界·宇宙·하늘·태양·태양계, 사람에 있어서는 아버지·남편·남성, 易學的으로는 乾方(서북방)·乾季(한여름)·寒帶·陽性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거기에 ‘一(氣, 神)’을 더한 天一은 天界의 신비적인 성격과 이법을 의미하게 된다.

地는 天과 반대의 뜻으로 地界·地獄·下界·우주의 땅세계·地球·地球系(地球와 달), 사람에 있어서는 어머니·아내·여성, 역학적으로는 坤方(서남방)·坤季(한여름)·熱帶·陰性 등을 의미하고, 거기에 ‘一(神, 氣)’을 더한 地一은 地界의 신비적인 성격과 이법을 의미하게 된다.

人은 하늘(天一)의 조화작용과 땅(地一)의 교화작용에 의해 태어나고 양육되는 것으로 생명계·생명체·인체·인체계, 사람에 있어

52) 李敦化, 前掲書, 第一編, p.23-24.

53) 金殷洙 譯, 前掲書, p.206.

서는 子女·어린이·중성, 역학적으로 人은 仁과 같은 뜻으로 쓰이므로<sup>54)</sup> 木에 해당되어 동방·온대 등을 의미하고, 거기에 ‘一(氣, 神)을 더한 人一은 생명계와 인체계의 신비한 성격과 이법을 의미하게 된다. 이래서 天一·地一·人一의 三神一體는 어디에나 없는데 없고 무엇이나 이루지 못함이 없는 우주운행의 원인 즉 천도인 것이며, 三神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 2) 三神一體와 道·佛·儒 三教一體思想의 發生

三神一體의 意味가 이상과 같다면, 거기에서 어떻게 신선도나 동학의 도·불·유 三教一體 사상이 발원되는가의 문제이다.

첫째, 天一의 造化, 地一의 教化, 人一의 治化가 신선도와 동학의 도·불·유와 어떻게 관련되는가를 우선 설명하면, 도교의 지상목표는 無爲自然的 道の 경지에 들어가는 것인데, 『도덕경』에 “道는 하나를 낳고, 하나는 둘을, 둘은 셋을, 셋은 만물을 낳는다”고<sup>55)</sup> 하여 道の 주요 기능은 낳음(生)이다. 낳음은 조화작용으로써 天一의 작용과 일치된다. 불교의 지상목표는 上求菩提 下化衆生으로써 그 주요작용은 教化인데, 교화는 地一의 작용과 일치된다. 유교의 지상목표는 修身齊家 治國平天下로서 그 주요 작용은 治化인데, 치화는 人一의 작용과 일치된다. 여기에서 신선도와 동학의 도·불·유 三教一體 사상은 天一·地一·人一 三神一體의 天道에서 발원됨을 추정할 수 있다.

둘째, 天一·地一·人一의 三神이 人體系에서는 息·感·觸 三門과 氣·心·身 三房과 命·性·精 三眞 등 三元의 稟賦가 되고, 삼원적 품부에서 道·佛·儒 三教一體 사상이 발원된다. 우선 三神과 삼원적 품부와와의 관계를 설명하면, 天一·地一·人一의 ‘一’은 氣와 같은 뜻으로 天一은 天氣, 地一은 地氣, 人一은 人氣를 의미한다. 주지하는 바, 天氣는 해와 달과 별의 빛과 별 그리고 공기를 의미

54) 張三植 編, 『大漢韓辭典』, (進賢書館, 1979), (仁字 參照).

55) 『道德經』, 第四十二章: 道生一 一生二 二生三 三生萬物.

하며, 그것은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호흡(息)·원기(氣)·목숨(命)과 불가분의 관계를 지닌다. 地氣는 물(水)과 植物과 穀物을 의미하며, 그것이 인체에 섭취되면 체질을 형성하고, 체질은 느낌(感)·마음씨(心)·성품(性)과 불가분의 관계를 지닌다. 이는 A형 체질에 A형 성격이, B형 체질에 B형 성격이 깃드는 격이다. 人氣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으로써 그것은 육체적 감각(觸)·몸체(身)·정기(精)와 불가분의 관계를 지닌다. 그런가 하면, 天氣·地氣·人氣의 共同作用 즉 三神一體의 作用에 의해 인체계의 호흡·원기·목숨(息·氣·命)과 느낌·마음씨·성품(感·心·性)과 감각·몸체·정기(觸·身·精)가 결정된다. 이래서 杏村 선생은 “도가 하늘에 있으면 그것이 (天·地·人의) 三神이 되고, 사람에게 있으면 (命·性·精의) 三眞이 된다”고 하였던 것이다.<sup>56)</sup>

셋째, 이들 三元的 稟賦에서 道·佛·儒 三教一體 사상이 발원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숨을 고르게 쉬고(調息) 원기를 길러(養氣) 불로장수(長命)하고 神仙이 되자는 것이 도교이고, 모든 느낌을 끊어 버리고(止感) 마음을 맑게 하여(明心) 본래의 성품을 깨달아(覺性) 佛陀가 되자는 것이 불교이며, 모든 육체적 감각(자극)을 극복하여(禁觸) 행실을 닦고(修身) 정기(정력)를 성실하게 함으로써(精誠) 聖人君子가 되자는 것이 유교이다. 즉 인체계의 三元的 稟賦인 息·氣·命에서 道教, 感·心·性에서 佛教, 觸·身·精에서 儒教가 발원되고 있는 것이다.

동학을 설파한 최제우 선생도 말하기를 “儒·佛·仙(道敎의 고전적인 표현)은 天道의 일부분이니 儒의 倫理와 佛의 覺性과 仙의 養氣는 人性의 自然한 稟賦이며 天道의 고유한 部分이니 吾道는 그 無極大源을 잡은 者이다”고 하였다.<sup>57)</sup> 이를 음미해 보면 儒의 倫理는 몸을 닦는 것(修身)이며, 佛의 覺性은 마음을 맑게 함(明心)으로써 성취될 수 있고, 道(仙)의 養氣는 원기(氣)를 기르는 것이다. 다

56) 金殷洙譯, 前揭書, p.278.

57) 李敦化 編述, 前揭書, 第一編, p.47.

시 말하면, 원기(氣)와 마음(心)과 몸(身)을 닦고 기르는 것이 道·佛·儒라는 것이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원기와 마음과 몸은 天氣·地氣·人氣와 불가분의 관계를 지닌다. 天氣·地氣·人氣는 天一·地一·人一의 다른 표현이다. 곧 동학의 道·佛·儒 思想도 天一·地一·人一의 天道에서 발원되고 있는 것이다. 동학의 일파인 수운교의 경전 『東道全書』에도 “이 세가지를 나누어 말하면 儒·佛·仙 三家의 가르침이요, 합하여 말하면 하나의 天道라”하고 있다.<sup>58)</sup> 그러므로 신선도와 동학의 도·불·유 三教一體 사상은 天一·地一·人一 三神一體의 天道에서 발원되고 있는 것이다. 『丹書口訣』에도 “天·地·人을 三才라 하고, 道·佛·儒를 三教라 하니, 三才가 바로 서면 이에서 三教가 나온다”고 하여<sup>59)</sup> 이상의 소론을 뒷바침하고 있다.

셋째, 天一·地一·人一의 三神一體에서 도·불·유 사상과 동학에 공통되는 陰陽五行思想을 도출할 수 있다. 음양이란 밝은 것과 어두운 것, 하늘과 땅, 남성과 여성 같이 상대관계가 서로 경쟁관계가 아니라 상부상조의 불가분적 관계임을 의미하고, 이에는 太陽과 太陰, 少陽과 少陰의 四象이 있다. 五行은 우주의 森羅萬象이 木·火·土·金·水의 다섯 가지로 動靜變化 내지 生成消滅 등 순환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陰陽五行思想이 三神一體의 天道에서 발원된다.

三神一體의 天一은 태양계, 地一은 지구계(지구와 달)를 의미하기도 한다. 태양계에서는 흑성이 해의 주위를 순환하고, 지구계에서는 달이 지구의 주위를 순환한다. 이는 해와 흑성, 지구와 달의 불가분적 상호 인력작용에 의해 생긴다. 이를 음양에 비유하면 해와 흑성의 관계는 태양과 태음의 관계에 해당되고, 지구와 달의 관계는 소양과 소음의 관계에 해당된다. 왜냐하면, 해와 흑성, 지구와 달을 四象이라 하고, 이들이 서로 끌고 당기며 순환하고 상부상조의 불

58) 水雲教本部, 『水雲教經典』, 東道全書(平和堂印刷社, 水雲降生 159), p.156에 “此三者를 分之曰 三家之教요 合之曰 一天之道라”하였다.

59) 李鍾殷 譯註, 『海東傳道錄·清鶴集』, 普成文化社, 1986), p.181.

가분적 陽과 陰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음양관계를 인체계에 부합시키면 인체에 天地人을 상징하는 머리·몸통·하반신이 있고, 팔·다리·손가락·발가락의 세 마디가 모두 天地人을 상징한다고 한다. 또 음양을 상징하는 두개의 눈, 두개의 귀, 두개의 콧구멍이 있고, 四象을 상징하는 四肢가 있으며, 그밖에 五臟과 六腑도 음양관계로 나누어진다.<sup>60)</sup> 이래서 음양사상은 三神一體의 天道에서 발원된다.

五行思想도 三神一體에서 발원된다.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공전함으로써 봄·여름·가을·겨울의 四季가 생기고, 四季의 성격과 작용을 간략히 표현한 것이 木·火·金·水이다. 즉 봄의 성격과 작용을 木, 여름의 성격과 작용을 火, 가을의 성격과 작용을 金, 겨울의 성격과 작용을 水로 표현하고,<sup>61)</sup> 그것은 지구의 공전에 의해 생기므로 地球인 土가 중앙에 위치하여 木·火·土·金·水로 된다. 이것이 五行이다. 오행을 인체에 부합시키면 인체에 五行을 상징하는 五指와 五臟이 있고, 각 부위와 기관의 기능도 五行으로 나누어진다.<sup>62)</sup> 그러므로 五行思想도 陰陽思想과 더불어 三神一體의 天道에서 발원되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신선도와 동학의 도·불·유 三教一體思想은 동일한 원리에서 발원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한웅천황이 종교창설의 원리로 한 三神一體, 곧 우리의 민속에 면면히 흐르고 있는 三神思想에서 발원되고 있다. 따라서 신선도는 동양의 전통적 老·釋·孔의 道·佛·儒 사상보다 先代의 思想이라 하더라도 이들 사상을 지닐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되고, 동학의 도·불·유 사상이 이들 외래 사상을 수용한 것이 아니라 고유사상인 신선도를 전승했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60) 南曉星 譯註, 『周易』, (修文書館, 1983), p.338.

61) 申天浩 著, 『陰陽五行의 概論』, (明文堂, 1986), pp.10-14.

62) 南曉星 譯註, 前掲書, p.338.

## 2. 基本思想의 同一性

앞에서 신선도와 동학이 다 같이 도·불·유 三教一體 사상을 밝혔고, 그 발생원리 역시 동일함을 밝혔다. 그렇다면 그밖의 기본 사상도 동일해야 한다. 이제 그 동일성을 몇가지 지적한다.

첫째, 신선도와 동학은 다같이 至氣論을 기본사상으로 한다.

신선도에서 三神一體의 神은 곧 氣를 의미하는데, 『桓檀古記』 蘇塗經典本訓에 의하면 “一氣가 곧 하늘이요 空이다. 그러나 스스로 中一의 神이 있어 능히 神이 된다. 三神은 곧 天一·地一·太一이다. 一氣가 스스로 동작하여 造·治·治의 三化의 神이 된다. 神은 곧 氣이다<sup>63)</sup> 하여 至氣論이 신선도의 가장 기본사상을 이룬다.

동학에서도 “氣라는 것은 虛靈하고 蒼蒼하여 간섭하지 않는 것이 없고 명령하지 않는 것이 없어 형용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형상하기 어렵고, 들리는 것 같으면서도 보기 어려우니 이것은 또한 혼원한 一氣니라”하는가 하면,<sup>64)</sup> “군자의 德은 氣가 발라서 마음이 정해져 있으므로 天地와 더불어 그 德에 합하고, 小人의 德은 氣가 바르지 못하여 마음이 옮기므로 天地와 더불어 그 命을 어기나니 이것이 성쇠의 이치가 아니겠는가”하여<sup>65)</sup> 至氣論이 동학의 기본사상을 이룬다. 이래서 신선도와 동학은 다같이 至氣論을 기본사상으로 한다.

둘째, 신선도와 동학은 다같이 하나님(하늘님)을 숭배의 대상으로 한다.

신선도의 경전 『三一神譜』를 보면 “하나님은 위없는 第一位에 계시어 大德·大慧·大力하시어 하늘을 조화하고 무수 세계를 주재하시며 만물을 가꾸시되 티끌 하나 빠뜨림이 없고 밝고도 신령하시니 감히 이름지어 헤아릴 길이 없느니라”하였는가 하면,<sup>66)</sup> 우리의 민

63) 金殷洙譯, 前掲書, p.206.

64) 『東經大全』, 論學文.

65) 上掲書, 論學文.

66) 『三一神譜』, 神訓.

속에 하나님 신앙이 있고, 우리민족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항상 하나님을 부른다. 그래서 곧 하나님은 신선도의 숭배대상인 것이다.

동학에서도 “그말 저말 다 던지고 하나님(하날님)을 공경하면 我東方 三年怪疾 죽을 염려있을 소냐”하는가 하면,<sup>67)</sup> “誠敬二字 지어 내어 하나님을 공경하면 自兒時 있던 身病 勿藥自效아닐런가”하였고,<sup>68)</sup> 동학의 기본주문인 “至氣今至 願爲大降 侍天主造化定 永世不忘萬事知”에도 天主 즉 하나님을 모셔야 한다고 강조하여 동학의 숭배대상 역시 하나님이다.

셋째, 신선도와 동학은 다같이 循環論이다.

신선도의 天一·地一·人一의 三神一體는 無頭無尾 無先無後의 一圓思想인데, 신선도의 경전 『天符經』에 “運三四成環五七一妙衍萬往萬來”라 하였고, 『參佺戒經』에 “순환이라 함은 형상있는 하늘의 윤회이니 형상있는 하늘은 윤회에 일정한 度數가 있어 조금도 어김이 없느니라”하여<sup>69)</sup> 신선도는 순환론이다.

동학에서도 “衰運이 지극하면 盛運이 오지마는 賢淑한 모든 君子 同歸一體하였던가”하고,<sup>70)</sup> “富하고 貴한 사람 이전 시절 貧賤이요, 貧하고 賤한 사람 오는 시절 富貴로세, 天運이 순환하사 無往不復 하시나니”하여<sup>71)</sup> 동학 역시 순환론이다.

넷째, 신선도와 동학은 다같이 생명평등사상 내지 만물일체사상이다.

신선도에서 天一·地一·人一의 三神一體는 萬物一體思想 내지 生命平等思想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런데 신선도의 경전 『三一神誥』에 “사람과 만물이 다같이 三眞을 받았나니 이는 性·命·精이라. 사람은 그것을 온전하게 받았으나 만물은 치우치게 받았나니라” 하여<sup>72)</sup> 사람과 만물이 근본적으로 性·命·精을 지니고 있다고 하

67) 『용담유사』, 권학가.

68) 上揭書, 권학가.

69) 『參佺戒經』, 第91事.

70) 『용담유사』, 권학가.

71) 『용담유사』, 교훈가.

72) 『三一神誥』, 眞理訓.



였다. 이는 불교에서 만물이 다같이 불성을 지니고 있다(皆有佛性)는 것과 같은 뜻이다. 따라서 신선도는 생명평등사상 내지 만물일체사상이다.

동학에서도 “天地·鬼神·造化라는 것은 유일한 至氣로 생긴 것이며, 만물이 또한 至氣로 생긴 것이니 이렇게 보면 하필 사람만이 天主를 侍하였으랴. 天地萬物이 侍天主 아님이 없나니, 사람이 다른 물건을 먹음은 이는 곧 以天食天이니라. 그러므로 諸君은 하나의 生物이라도 무고히 害하지 말라. 이는 天主를 상해함이니 大慈大悲하여 조화의 길에 순응하라<sup>73)</sup>하여 모든 생명체가 하나님의 조화이고, 하나님을 모신 존재로서 존귀함을 말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저 것도 또한 侍天主의 소리니라. 妙하도다. 天道의 靈妙가 일에 간섭치 않음이 없도다. 하늘의 日月로부터 땅의 微塵에 이르기 까지 다 天道의 靈光이니라. 愚俗이 山이나 물에 빌어 복을 구하는데 또한 異驗이 없지 아니함은 天地의 靈妙가 照臨치 않은 곳이 없는 증거니라”하였다.<sup>74)</sup> 이 내용 역시 천지의 만물이 다 하나님의 영묘한 기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동학 역시 생명평등사상 내지 만물일체사상이다.

다섯째, 신선도와 동학은 다같이 민주주의사상이다.

天一·地一·人一의 三神一體는 天人合一思想으로써 하늘이 곧 인간이고 인간이 곧 하늘이라는 최대 최고의 인권존중사상이며, 上·中·下 일체의 인간평등사상이다. 그러므로 신선도는 곧 민주주의사상이다.

동학에 있어서 侍天主思想도 최시형 시대에 이르러서는 事人如天思想으로 발전되고, 손병희 시대에 이르러서는 人乃天思想으로 발전된다. innate천사상 역시 하늘이 곧 인간이고 인간이 곧 하늘이라는 뜻으로 최대 최고의 인권존중사상이며 인간평등사상이다. 朴鍾鴻 박사는 “현대사상에서도 천도교의 人乃天만큼 보다 인간의 존엄

73) 李敦化 編述, 前揭書, 第二編, p.36.

74) 上揭書, 第二編, p.41.

성을 강조하는 사상을 찾아볼 수 없다. 사람이 곧 하늘이라면 전통적인 기독교인은 깜짝 놀랄 일이다. 그보다 더 큰 죄악이 없기 때문이다. 그만큼 특색이 있다.....人乃天의 종지는 현대의 그 어느 민주주의보다도 철저하고 깊은 것이 아닐 수 없다”고 하여<sup>75)</sup> 인내천 사상이 곧 민주주의사상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신선도의 三神一體사상과 동학의 人乃天思想은 다같이 班常·嫡庶·勞使·男女·老少·貧富·貴賤의 차별이 없는 인간평등사상이며 최대 최고의 인권존중사상으로서 민주주의사상인 것이다.

## 5. 結 論

이상에서 논한 바와 같이 우리민족의 상대사상인 神仙道에 도·불·유 三敎思想이 一體를 이루고 있었다. 최제우 선생이 설한 동학에도 도·불·유 三敎思想이 一體를 이루고 있었다. 또한 신선도가 백두산 정상의 龍潭(天池)에서 桓雄天皇에 의해 비로소 설과되었는데, 동학이 山岳의 龍潭과 開闢初의 天皇氏에 발생원인을 두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한 사상이 고운 최치원 선생의 난랑비서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 그 25世孫인 최제우 선생은 동학을 천년 동안이나 집안에서 전해온 百世의 家業이라 하였다. 또한 신선도와 동학의 발생원리가 동일하였다. 그외에도 至氣論·숭배의 대상·순환론·생명평등사상 내지 만물일체사상·민주주의사상 등 기본사상이 동일하였다. 그러므로 동학의 도·불·유 三敎一體 사상은 동양의 전통적 老·釋·孔의 外來思想을 수용하여 종합하거나 재구성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상고시대부터 전승된 신선도의 도·불·유 三敎一體 사상을 계승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여기에서 동학은 상대사상인 신선도의 재현이며 부활이라 할 수 있고, 최제우 선생과 최시형 선생은 사라져가는 민족혼과 민족사상

75) 柳炳德 編著, 『東學·天道敎』, (시인사,1987), p.469.

을 일깨우고 부활시킨 大宗教家요 大學者요 大思想家요 大革命家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와 같이 사계의 학자들도 외래사상과 아울러 고유사상으로, 또한 현세사상이나 근세사상과 아울러 고대사상으로 연구의 폭을 넓혀야 할 것으로 본다. 다시 말하면 자료가 많고 편의한 데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해결에 노력해야 하고, 연구물의 평가도 자신의 견해와 종전의 통설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학설에도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世界文化는 철석같이 믿던 통설이 무너지면서 발전되어왔다는 사실을 상기해 주기 바란다. 최시형 선생이 말한 바, “天竺氏의 本心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뉘가 輔國安民하리요”했듯이<sup>76)</sup> 새로운 자세로 동학사상과 신선도를 재조명하여 민족혼을 일깨우는 데에 일조해야 할 것으로 믿는다.

## 參 考 文 獻

- 『慶州崔氏大同譜』, 부산 : 慶州崔氏花樹會, 1969.  
 國民倫理學會 編, 『韓國의 傳統思想』, 서울 : 螢雪出版社, 1983.  
 金敎獻, 『神檀實記』, 서울 : 한뿌리, 1987.  
 金得棧, 『白頭山과 北方疆界』, 서울 : 思社研, 1987.  
 ——, 『韓國宗教史』, 서울 : 白岩社, 1978.  
 金庠基, 『東學과 東學亂』, 서울 : 大成出版社, 1945.  
 金殷洙 譯, 『桓檀古記』, 서울 : 가나出版社, 1985.  
 南晚星 譯註, 『周易』, 서울 : 修文書館, 1983.  
 大野勃 原著(鄭海伯 譯), 『檀奇古史』, 서울 : 蓋馬書院, 1982.  
 『道德經』  
 『東文選』, 第三十一卷.  
 北崖(申學均 譯), 『揆園史話』, 서울 : 明知大學校 出版部, 1981.

76) 李敎化, 前掲書, 第二編, p.27.

- 司馬遷(李成奎 編譯), 『史記』, 서울 : 서울대학교 出版部, 1987.
- 『三國史記』
- 『三國遺事』
- 『三一神話』
- 水雲教本部, 『水雲教經典』, 서울 : 平和堂 印刷社, 水雲降生 159.
- 申福龍, 『東學思想과 甲午農民革命』, 서울 : 平民社, 1985.
- 申天浩, 『陰陽五行의 概論』, 서울 : 明文堂, 1986.
- 安昶範, 『民族思想의 源流』, 서울 : 教文社, 1992.
- , 『韓民族의 神仙道와 佛教』, 서울 : 國學資料院, 1993.
- 안호상, 『단군과 화랑의 역사와 철학』, 서울 : 사림원, 1979.
- 柳炳德 編著, 『東學·天道教』, 서울 : 시인사, 1987.
- 李能和 編, 『朝鮮道教史』, (影印本), 서울 : 中央대학교 韓國學研究所, 1977.
- 李敦化 編述, 『天道教創建史』, 서울 : 景仁文化社, 1982.
- 李世權 編著, 『東學經典』, 서울 : 正良社, 1986.
- 李乙浩 外, 『한思想과 民族宗教』, 서울 : 一志社, 1990.
- 李鍾殷 譯, 『朝鮮道教史』, 서울 : 普成文化社, 1983.
- 譯註, 『海東傳道錄·靑鶴集』, 普成文化社, 1986.
- 李炫熙, 『東學思想과 東學革命』, 서울 ; 靑亞出版社, 1,984.
- 張三植 編, 『大漢韓辭典』, 서울 : 進賢書館, 1979.
- 趙汝籍, 『靑鶴集』, 『揆園史話·靑鶴集』, 亞細亞文化社, 1976.
- 天道教中央總部, 『天道教經典』, 서울 : 天道教中央總部 出版部, 布德  
125.
- 『參佺戒經』
- 學園出版公社事典編纂局, 『學園世界大百科事典』, 서울 : 學園出版公  
社, 1994.
- 韓國思想研究會 編, 『韓國思想叢書』, ( I ), 서울 ; 景仁文化社, 1973.
- 韓國思想研究會 編, 『韓國思想叢書』, ( IV ), 서울 : 泰光文化社, 1980.
- 황준연, 『한국사상의 이해』, 서울 : 박영사, 1992.